

한국중공업(주)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용
핵심설비 수출

중국 진산 원전 증기발생기
2기 출하

한 국중공업(사장 尹永錫)이 원자력발전소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를 자체 설계·제작해 국내 최초로 해외에 수출했다.

한중은 지난 5월 26일 700MW급 중국 진산(Qinshan, 秦山) 원자력발전소용 증기발생기(Steam Generator) 2기 제작을 마치고, 발주처인 중국 제3핵전공사 및 캐나다의 AECL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공장 부두에서 출하행사를 가졌다.

이날 출하된 캔두(CANDU) 타입의 증기발생기는 직경 4m, 높이 20m, 총중량 220톤에 달하는 대형 설비로 원자로에서 가열된 중수(重水)를 받아 내부에 설치된 3,550여 개의 U자형 튜브를 통해 고온고압의 증기를 만들어 터빈발전기를 돌리는 핵증기 공급시스템의 핵심설비이다.

특히 고온고압(압력: 112.5kg/cm², 온도: 320°C)의 증기를 다루는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와 함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직결됨으로써 고도의 설계 및 제작능력이 요구되 그 동안 유럽, 미국의 몇몇 원자력 발전설비 제작업체들만이 제작해 왔다.

이번 출하로 우리 나라는 지난 '78

년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를 외국 기술로 건설한 이후 20여년 만에 원전 핵심설비를 독자기술로 제작 수출할 수 있는 원전설비 수출국이 됐다.

한중은 지난 '97년 1월 캐나다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td.)사로부터 중국 진산 원자력발전소용 핵증기 공급계통 20여종을 1억 2천만달러(1천 4백여억원)에 수주한 바 있으며, 올 7월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진산 원자력발전소는 중국 제3핵전공사(TQNPC: Third Qinshan Nuclear Power Co.)가 진행중인 700MW 2기의 중수로형으로 상해 남부 절강성 지역에 200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발전소이다.

한중은 “중국은 현재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중은 국내 전력그룹 협력사와 함께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진산 원자력발전소용 핵심설비 제작이 향후 수주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중은 지난 해 12월 북한 금호지구에 건설될 KEDO 원자력발전소용 원자로, 터빈발전기 등의 주기기 공급계약을 8500억원에 계약한 바 있으며, 지난 해 9월에는 미국 세쿼야(Sequoayh)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4기(총 5천만달러)를 수주하는 등 원전설비 분야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전기공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한 국전기공업진흥회(회장 劉在院)는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을 개최하며, 동 전시회 개최를 계기로 그 동안 전기공업 발전을 위해 신기술 개발 및 수출 산업화 부문에서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선발하여 포상할 계획으로 업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포상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포상 계획은 전기공업의 신제품 개발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기제품의 국산화 및 품질수준을 제고함은 물론 전기공업의 수출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서 심사 분야 및 방법은 전기·전선·용접·조명 등 전기기기류와 부품·소재 분야이며, 산·학·연·관 전문가 6인 이내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이를 토

대로 현장 실사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며, 포상훈격 및 규모는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3명, 중소기업청장 표창 3명, 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 표창 5명이며,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개막식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관련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진흥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ema.or.kr>)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각 행사는 다음과 같다.

- ① 전기산업 신기술 세미나
 - 일 시 : 2000. 11. 14(화) 10:00~17:00
 - 장 소 : 서울무역 전시장 회의실 (2층)
 - 위탁기관 : 한국전기연구소
- ② 대기업 무역상사와의 수출 상담회
 - 일 시 : 2000. 11. 15(수) 10:00~17:00
 - 장 소 : 서울무역전시장 제2전시실
 - 상담자 : 현대종합상사(주) 등 15개 사
- ③ 동남아시아 전력청 관계자 초청 수출상담회
 - 일 시 : 2000. 11. 15(수) 10:00~17:00
 - 장 소 : 서울무역전시장 제2전시실
 - 초청국가 : 중국,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4개국

- ④ 일본전력회사와의 수출상담회
 - 일 시 : 2000. 11. 16(목) 10:00~17:00
 - 장 소 : 서울무역전시장 제2전시실
 - 상담자 : 동경전력 등 5개 전력회사 30명 내외
- ⑤ 전기공학과 취업박람회
 - 일 시 : 2000. 11. 17(금) 10:00~17:00
 - 장 소 : 서울무역전시장 제2전시실
 - 대상업체 및 졸업생 : 30개 사 500명 내외

LG산전(주)

중국 대련세계무역센터 등 전력설비 수주

LG산전(대표 孫基洛 부회장)이 최근 중국지역 3건의 전력기기 랜드마크(Landmark) 프로젝트에서 총 350만弗을 수주, LG산전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국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LG산전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지상 51층, 지하 4층 규모의 중국 동북 3성 최고층 빌딩인 대련세계무역센터(Dalian World Trade Center)에 변압기와 수배전반을 공급기로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중국 스촨성(四川省) 「넌양시(綿陽市) 신공항 프로젝

트」를 수주, 고압배전반과 몰드변압기를 7월까지 납품할 예정이다.

또한, LG산전은 중국 지양수성(江蘇省) 「쉬조우발전소(徐州發電廠) 개조프로젝트」에서 ABB社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수배전반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다.

120만kW 규모의 쉬조우발전소는 중국 2대 발전소 중 한곳이며 전기업계 인사들의 견학지로 자주 이용되는 곳으로서, LG산전은 이번 수주로 LG산전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지역내 발전소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수주함으로써 향후 중국지역내 대형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산전은 향후 랜드마크 프로젝트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배전반, 변압기, 개폐기 등을 생산, 판매하는 LG산전 대련법인을 거점으로 중국지역 공략을 가속화함으로써 올해 중국지역내 전력기기 및 시스템 분야 매출이 지난 해 대비 67% 증가한 2천만弗 이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주)

을 技能匠에 12명이나 합격

을 상반기 실시된 「제27회 技能匠 시험」에서 現代重工業(대

표 : 趙忠彙)에서 12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번에 울산에서 技能匠의 영예를 안은 합격자는 총 18명, 이 중 現代重工業이 12명이나 차지하고 있어 기능인력 산실로서의 명성이 헛되지 않음을 과시하고 있다.

12명 중 기계가공기능장에서 조재철, 김인태, 이영훈, 김지원, 김종후, 이원기, 김기홍, 윤석일, 윤영중, 이용섭 등 10명이, 보일러기능장에서 김영근, 김동명 등 2명이 합격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해 技能匠 시험에서도 김영진 씨가 전국 수석을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로써 現代重工業은 국가기술자격 기능계열 최고 등급인 技能匠을 48명이나 배출한 전국 최대의 기능인의 요람으로 자리했다.

지난 해까지 평균 3~4명의 技能匠을 배출했던 이 회사에서 올해 갑자기 합격자가 늘어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1월부터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종업원에게 특별자격수당을 지급하는 등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종업원의 사기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기능장들은 이러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올 초부터 「기능장 동우회」를 결성, 서로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례 미팅을 갖는 동시에 회사 내 기능인들이 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아울러 체계적인

지도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現代重工業은 지금까지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만 34명을 배출한 것을 비롯, 산업명장 13명, 품질명장 12명 등 각 분야에서 단일기업 최대의 기능인을 배출한 바 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김영문 · 윤갑구씨
비상근 부회장 선임

한 국전력기술인협회(회장 안인순)는 지난 5월 20일 제28차 이사회 및 지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김영문 삼성물산 고문과 윤갑구 에이스 기술단 대표를 비상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영문 부회장은 서울대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한전 수화력 건설사업단장 및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또 윤갑구 부회장은 한양대 대학원 출신으로 동북아전력계통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주)피스네트워크 코리아의 대표도 맡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주)

신임 社長에 金德之 씨
監事に 梁昌國 씨 선임

한 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이며 국내 유일의 핵연료 전문회사인 한

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지난 6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사장에 金德之(59세) 현 감사를 선임하였다.

신임 金德之 사장은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근무하였으며, 1998년부터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했었다.

한편 신임 감사에는 梁昌國(59세) 대한전기협회 전무를 선임하였다. 신임 梁昌國 감사는 전북 장수 출생으로 서울대와 미오레군주립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전력공사 원자력교육원장, 대한전기협회 전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한국전력공사

'어린이 전기과학 캠프' 열여

한 국전력(사장 崔洙秉)은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1차), 8월 8일부터 11일까지(2차) 2차례에 걸쳐 각각 3박 4일 일정으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재 남이섬 캠프장에서 「2000년 어린이 전기과학캠프」를 개최한다.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으로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총 240명을 선발하며,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이번 과학캠프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전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

련한 문화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지난 '94년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로 여섯 번째이다. 특히 올해는 그 동안 서울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확대하여 전국으로 참가범위를 넓혔으며, 개최 횟수와 선발인원도 늘려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캠프에서 어린이들은 전자석, 전기도금 목걸이, 에어로켓 등의 전기 공작물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전원리에 대한 실험, 과학퀴즈올림픽, 발전소 견학 등을 통해 기초 과학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다. 또 자연을 벗삼아 생활하면서 여러 친구들과 수영강습과 레크레이션, 생태계 관찰 등을 함께 하며 단체생활의 신나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한전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epco.co.kr>)를 통해 6월 14일부터 7월 8일까지 접수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참가자는 7월 12일 한전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개별 우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처 : 노무처 기업문화팀 이하원 과장(T:3456-3171)

한전KDN(주)

벤처플라자 설립-벤처팀 입주

한 전KDN(사장 鄭然東 www.kdn.com)은 e-biz사업 전개의

일환으로 벤처 플라자를 설립, 1차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의 사내 벤처팀을 6월 내에 입주시킬 예정이다.

지난 3월 실시한 사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122건의 제안사업이 접수되었으며 1, 2차에 걸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최종 3건을 중심으로 벤처팀을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회사는 이들 벤처팀에게 사무실 임대료 무상지원은 물론 자금, 기술, 인력,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을 하게 되며, 사업 추진의 성과에 따라 급여 및 인사고과 혜택과 추후 분사를 통한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연동 사장은 "안으로는 사내 벤처 마인드 고양 및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밖으로는 기술력 향상을 통한 인적, 기술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e-Biz 신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Biz Leader 비전 선포식'을 통해 신규사업 진출, 신기술 개발 및 전략적 제휴 추진 등 e-Business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전KDN은, 벤처플라자 설립 외에도 산업정보망 관련 사업의 확대를 위해 산업정보망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신입 전자상거래 팀장의 임명, 기술연구센터에 전력그룹 내 e-비즈니스 컨설팅 및 솔루션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전력산업 e-Biz센터'를 개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외에도 부사장은 반장으로 한 전력선 이용 부가사업(PLC : Power Line Communication) 진출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구성, 해외사업 진출 강화를 위한 북경사무소 오픈 등 e-Biz 사업 전개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국전기공업(주)

전략적 영업제휴-美 스텐포드 뉴웨이지사

발전기 전문 생산업체인 보국전기공업(대표 곽중보)은 최근 미국의 스텐포드 뉴웨이지사와 국내·외 시장에서 전략적 영업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영업제휴를 통해 15kW 이하 소용량발전기와 몰드변압기는 보국의 제품을 판매하고 2,500kW급 대용량은 스텐포드 뉴웨이지사의 제품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양사의 이번 제휴는 취약 부문을 상호 보완할 수 있어 국내시장판매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국전기 곽기영 부사장은 "선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제품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는 물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수월해져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텐포드 뉴웨이지사는 발전기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의 품질 및 매출, 생산량부문에서 세계 제1의 회사로 알려져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 논문·포스터 공모

한 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원자력에 대한 논문, 포스터, 표어를 공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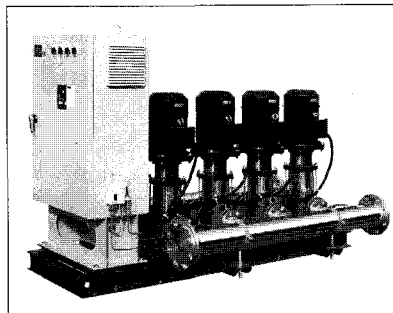
논문공모는 올해로 6회째를 맞으며, 포스터 및 표어공모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에서 입상자는 산업자원부장관상 및 재단이사장상과 상금을 받게 된다.

LG전선(주)

차세대 PUMP 개발 시판

LG 전선(대표 권문구 www.lgcable.co.kr) 펌프사업부는 최근 2세대 펌프로 각광받고 있는 부스터 시스템(가압 급수 방식) 펌프 'Gold Step' 'Gold Vert'를 개발하고 시판에 들어간다.

부스터 시스템이란 기존 고가수조 방식(건물 옥상에 수조(노란 물탱크)가 있고 지하에서 옥상까지 끌어올린



후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가 수조(물탱크) 없이 지하에서 바로 가압을 시켜 각 가정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펌프를 Inverter Type 이나 일반 대수 Type으로 가동시키는 방식이다.

기존 고가수조 방식은 수질위생 관리의 난점, 건축범상 고도제한의 제약, 건물 외관상 미관 저해, 최상층에서의 수압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고 위생적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적은 가압급수방식(부스터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다.

국내 빌딩급수용 펌프 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시장규모는 900억으로 추정되는데 '부스터 시스템'의 경우 외산이 M/S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LG전선은 1년여의 기간 동안 LG 그룹 연구소와 연계하여 부스터 시스템을 자체개발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

한 '韓國형 부스터 시스템' 2종을 출시하였으며, 신제품의 출시에 맞춰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인터 컨티넨탈 호텔에서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설계사무소, 주요 건설업체, 엔지니어링사, 각급 관공서 등 200여 업체가 참석하여 부스터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LG전선은 이번 신제품 출시 및 기술 세미나를 통해 2세대 시장에서의 Image-up과 30%의 M/S를 통해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기술교육원 개원

한 국전기안전공사(이사장 張貞坤)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충남 아산시 도고면에서 국내 최초의 전기안전기술인력 양성센터인 "전기안전기술교육원" 개원식을 가졌다.

전기안전기술교육원은 4,400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최신 정보화 건물로 200여명이 동시에 교육을



梁昌國 한전원자력연료(주) 監事 장학기금 출연

자타가 공인하는 핵연료 전문가인 梁昌國 한전원자력연료(주) 감사(전 대한전기협회 전무이사)가 협회를 떠나면서 대한 전기협회 장학회에 1백만원의 장학기금을 출연했다.

梁昌國 감사는 협회에 재직하는 동안 본협회 장학회에서 장학금 수혜로 해외유학을 한 현직 교수 및 대기업 임원들의 협회에 대한 관심 고취와 장학기금 출연(4천 7백만원) 독려 등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또한,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발전 및 협회위상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재단법인 대한전기협회 장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토마스 엘바 에디슨」의 발명정신에 입각, 일생을 전기분야에 종사하게 될 우수한 전기공학도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에디슨 장학재단과 함께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동안 416명의 국내 및 해외 유학생들에게 9억 2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받을 수 있는 첨단 교육장비를 갖추고 있다.

교육원은 자체 직원교육은 물론 공공기관과 산업체 전기안전분야 종사자 등 외부직원 수탁교육으로 전기재해 예방과 산업체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 김포의 첨단 디지털 테크노피아(부지 2,500평에 건평 1,500평)에 함께 입주, 6월 16일 준공식을 가졌다.

2000년을 함께 열어갈 6개 협력회사는 동일계기(주)(디지털 계측기기), (주)새론소프트(소프트웨어), (주)아이 켄(Web S/W), 삼신기전사(외함), 선우산기(기계구조물), 중앙전기(조립)이다.

디지털시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과 전통제조업의 결합은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으며 전통제조업은 상품제조와 가치, 인적자원 등 생산과 관련된 측면에서 온라인 업체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빠른 적응력과 수십만 회원을 거느린 인터넷 기업의 마케팅 능력이 더해진다면 최고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케이디파워가 협력회사와 바로 이러한 사례를 직접 실현하고 있다.

케이디파워는 Web기반 실시간 전

기안전관리서비스(iKEN)를 지난 4월 29일 시범서비스(www.iken.co.kr)를 성공적으로 개시한데 이어 6월 16일부터 상용서비스를 본격 실시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각 산업계의 전력 DB를 확보, 구축함으로써 전력이용의 합리화를 꾀하고 있어 전기업체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케이디파워의 한 관계자는 "iKEN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이제부터 전기로 인한 재해는 없을 것"이라고 하며, 20,000 수용가의 고객을 확보하는 시점인 내년에는 산업분야의 포털사이트를 구축, 전 산업분야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사이트도 성공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산업별, 지역별, 그룹별, 국가별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국가적 에너지절감 시스템인 "GEMS"도 개발, 고유가 시대에 있어 국가 에너지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케이디파워

「디지털 테크노피아」 신공장 준공 및 iKEN 상용서비스 개시

전 력벤처기업인 (주)케이디파워(대표 박기주, www.kdpower.co.kr)가 협력회사와 전략적 제휴에 의한 WIN-WIN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케이디파워는 6개 협력회사와 함께 첨단기술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경영전략 아래 그간 추진해 온 한 지붕 7가축을 드디어 실현, 지난 5월